

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

2023.11.20

미 증시, 달러 약세에 3주 연속 상승 마감

김석환 seokhwan.kim@miraeasset.com

미 증시 동향: 3주 연속 상승

- 미 증시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긴 상승랠리를 펼치며 3주 연속 상승 마감.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4.4%를 하회하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,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월간 하락세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지속됨을 나타내.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과 감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란 소식에 4% 넘게 상승. 국제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완화 미국 경제 모멘텀 둔화 조짐에 이번 주 2% 넘게 상승.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(VIX)는 13.8 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중순 이후 최저 기록. (다우 +0.01%, 나스닥 +0.08%, S&P500 +0.13%, 러셀2000 +1.3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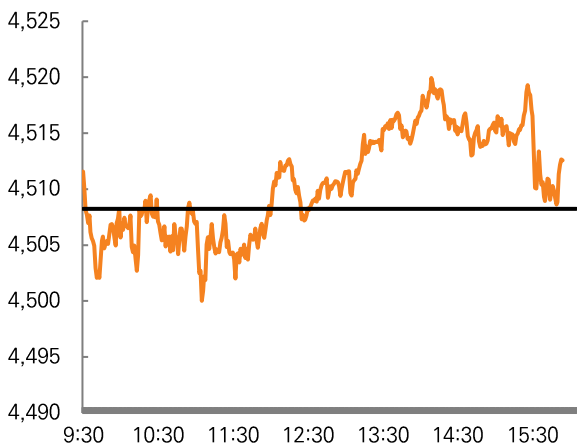
특징 종목: 에너지 강세

- (섹터) S&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에너지(+2.12%), 경기소비재(+0.73%) 등 6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(-0.47%), IT(-0.28%) 등 5개 업종은 하락.
- (상승) 국제유가가 4% 넘는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, 엑슨모빌(+2.44%), 코노코필립스(+2.32%), 쉘(+1.90%) 등 에너지 섹터 내 23개 기업 모두 상승.
- (하락) 차지포인트 홀딩스(-35.46%)는 3분기 매출 결과가 이전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급락. 또한 CEO와 최고재무책임자(CFO)를 교체해 경영진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혀. BJ's 홀세일 클럽(-4.81%) 역시 3분기 동일 매장 매출 예상치를 이전보다 축소

한국 증시 전망: 제한적 하락

- MSCI 한국 지수 ETF는 0.84% 하락, MSCI 신흥 지수 ETF는 0.13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293.43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/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0.06% 하락. KOSPI는 0.2~0.5%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 지난 10월 말, 외국인의 연간 누적 순매수 규모는 4.7조원까지 하락하며 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. 그러나 11월 들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17일 현재 7.9조원까지 다시 확대. 한 가지 고민스러운 점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연간 누적 순매수는 4,500억원 매도 우위라는 점.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그리 뜨겁지 못하다는 걸 반증. 이는 여러모로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꽤 고민스러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.

S&P500 일종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Global Indices

지수등락률	Close	D-1(%)	지수등락률	Close	D-1(%)
KOSPI	2,469.85	-0.74	상해종합	3,054.37	+0.11
KOSDAQ	799.06	-1.49	홍콩항생	17,454.19	-2.12
DOW	34,947.28	+0.01	인도센섹스	65,794.73	-0.28
NASDAQ	14,125.48	+0.08	유로스톡스 50	4,340.77	+0.89
S&P 500	4,514.02	+0.13	영국	7,504.25	+1.26
캐나다	20,175.77	+0.61	독일	15,919.16	+0.84
일본	33,585.20	+0.48	프랑스	7,233.91	+0.91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
 변화 요인

① 달러약세 ② FedSpeak

미 증시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긴 상승랠리를 펼치며 3주 연속 상승 마감.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4.4%를 하회하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,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월간 하락세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지속됨을 나타내.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과 감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란 소식에 4% 넘게 상승. 국제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완화 미국 경제 모멘텀 둔화 조짐에 이번 주 2% 넘게 상승.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(VIX)는 13.8 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중순 이후 최저 기록.

3분기 어닝시즌

3분기 어닝시즌도 이제 거의 막바지. S&P 500의 94%(471개社)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,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2%에 달해. 주당순이익(EPS) 성장률은 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(+) 성장(전년대비 4.0%)할 것으로 예상. 다만,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48.9%로 2019년 3분기(47.8%)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. 그럼에도 매출 성장률은 전년대비 2.0%로 시장이 예상한 1.1%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.

반면, 러셀 2000 중소형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대비 -4.0%로 시장이 예상한 -3.3%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.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시장 예상을 하회. 또한 연속 마이너스(-)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건 2020년 4개 분기 연속에 이어 올해 2개 분기(2분기와 3분기)가 될 것으로 전망.

FactSet은 최근 몇 달동안 CPI 수치가 3~4%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한 횟수가 줄었다고 밝혀.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S&P 500 기업 중 약 276개 기업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언급. 이는 2021년 2분기(222개)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5개 분기 연속 둔화하는 모습 보여.

Eco리뷰: 주택착공건수, 건축허가

10월 주택착공건수는 137.2만건(전월대비 +1.9%)을 기록하며 이전 수정치 134.6만건 및 시장 예상치 135.0만건을 모두 상회. 단독 주택착공은 전월대비 0.2% 증가한 97만건을 기록했으며, 다가구 주택은 5개 이상 건물의 착공이 전월대비 4.9% 증가한 38.2만건을 기록. **10월 건축허가건수**는 148.7만건(전월대비 1.1%)을 기록하며 이전 수정치 147.1만건 및 시장 예상치 145.0만건을 모두 상회. 특히, 변동성이 큰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건수는 2.2% 증가한 51.9만건으로 9월 기록한 3년래 최저치에서 반등.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사용가능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영향으로 신규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가 지속 늘어. 이는 수요대비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서 미국의 주택가격 상방위험을 지속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.

FedSpeak: 인내심

M.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2% 인플레이션으로 향하는 궤도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해. S.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(완화)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지만 데이터는 불안정하다고 말하면서 ‘인내심’이 필요하다고 강조.

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에너지 강세

(섹터) S&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에너지(+2.12%), 경기소비재(+0.73%) 등 6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(-0.47%), IT(-0.28%) 등 5개 업종은 하락

(상승) 국제유가가 4% 넘는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, 엑스모빌(+2.44%), 코노코필립스(+2.32%), 쉘브론(+1.90%) 등 에너지 섹터 내 23개 기업 모두 상승. 의류 소매업체인 갭(+30.58%)과 로스 스토어스(+7.22%)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3분기 실적 발표에 상승. 익스피디아(+5.05%)와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(+10.67%)는 각각 에버코에SI와 UBS가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하자 강세. 테넷헬스케어(+9.63%)는 약 24억 달러 규모의 병원 3곳을 매각하겠다고 발표. 딜라드(+7.65%)는 주당 20달러의 특별 배당금과 주당 25센트의 분기 배당 발표에 강세.

(하락) 차지포인트 홀딩스(-35.46%)는 3분기 매출 결과가 이전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급락. 또한 CEO와 최고재무책임자(CFO)를 교체해 경영진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혀. BJ's 홀세일 클럽(-4.81%) 역시 3분기 동일 매장 매출 예상치를 이전보다 축소. 스펙트럼 브랜드 홀딩스(-11.81%)는 연간 매출 가이드نس 하향 소식에 약세. 깃랩(-3.58%)는 바클레이즈가 투자의견 하향.

상품 및 FX시장 동향

유가 상승, 달러 약세

(유가) 국제유가는 오는 11월 26일 OPEC+ 장관급 감시위원회(JMMC)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 축소 및 감산 기간 연장 등 유가 하방 지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가능성에 상승. 파 이낸셜타임즈(FT)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과 올 연말까지 예정된 감산 기한을 내년 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전해. 국제유가는 지난 9월 말 고점에서 20% 넘게 하락하며 7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.

(외환) 달러인덱스는 연준의 긴축 우려 완화 속에 약세를 보이며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. 달러인덱스는 11월 들어 2.6%, 이번 주 1.8%나 하락. 특히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3월(-2.3%)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.

(금속) 구리 선물 가격은 낮은 재고량과 중국 부양책에 대한 수요 기대감 속에 파운드당 3.7달러를 상회하며 7주 최고치에 근접. 국제 금 가격은 이번 주 2% 넘게 상승하며 온스당 1,980달러 기록.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제한적 하락

MSCI 한국 지수 ETF는 0.84% 하락, MSCI 신흥 지수 ETF는 0.13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293.43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/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0.06% 하락. KOSPI는 0.2~0.5%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

지난 10월 말, 외국인의 연간 누적 순매수 규모는 4.7조원까지 하락하며 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. 그러나 11월 들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17일 현재 7.9조원까지 다시 확대. 한 가지 고민스러운 점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연간 누적 순매수는 4,500억원 매도 우위라는 점.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그리 뜨겁지 못하다는 걸 반증. 이는



여러모로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꽤 고민스러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.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 (XOP)	+2.20	대형 가치주 ETF (IVE)	+0.23
클린테크 ETF (CTEC)	-1.38	중형 가치주 ETF (IWS)	+0.72
소매업체 ETF (XLY)	+0.67	소형 가치주 ETF (IWN)	+1.52
온라인소매 ETF (EBIZ)	+1.34	대형 성장주 ETF (VUG)	-0.08
미국 인프라 ETF (PAVE)	+0.84	중형 성장주 ETF (IWP)	+0.71
핀테크 ETF (FINX)	+0.20	소형 성장주 ETF (IWO)	+1.30
소셜미디어 업체 ETF (SOCL)	+0.06	퀄리티 배당주 ETF (QDIV)	-0.47
클라우드 ETF (CLOU)	+1.68	신흥국 고배당 ETF (SDEM)	+0.12
사이버보안 ETF (BUG)	-0.47	신흥국 저변동 ETF (EEMV)	+0.15
전기차&자율주행 ETF (DRIV)	+0.96	미국 국채 ETF (IEF)	+0.06
글로벌 2차전지 ETF (LIT)	+2.36	하이일드 ETF (JNK)	+0.22
바이오섹터 ETF (IBB)	+0.91	신흥국 채권 ETF (EMBD)	+0.20
로봇&AI ETF (BOTZ)	+0.66	물가연동채 ETF (TIP)	+0.11
반도체 ETF (SMH)	+0.47	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(LQD)	+0.29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에너지	643.50	+2.12	+0.88	-6.89
경기소비재	1,323.93	+0.73	+3.38	+10.66
산업재	891.12	+0.59	+2.88	+6.70
금융	581.31	+0.55	+3.26	+8.48
유틸리티	314.76	+0.19	+2.97	+6.84
소재	504.69	+0.17	+3.67	+6.48
필수소비재	732.38	-0.18	+0.57	+3.03
헬스케어	1,492.44	-0.19	+1.53	+0.03
부동산	225.03	-0.19	+4.46	+9.60
IT	3,247.72	-0.28	+1.69	+11.91
커뮤니케이션	237.25	-0.47	+2.30	+4.39

글로벌 FICC 동향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75.89	+4.10	-1.66	Dollar Index	103.917	-0.41	-1.84
브렌트유	80.61	+4.12	-1.01	EUR/USD	1.0915	+0.58	+2.14
천연가스	2.96	-3.33	-2.41	USD/JPY	149.63	-0.73	-1.25
금	1,984.70	-0.13	+2.43	GBP/USD	1.2462	+0.39	+1.92
은	24.20	-0.31	+6.99	USD/CHF	0.8857	-0.34	-1.88
알루미늄	2,207.00	-0.38	-0.74	AUD/USD	0.6515	+0.70	+2.42
전기동	8,267.00	+0.57	+1.22	USD/CAD	1.3723	-0.23	-0.57
아연	2,555.00	-0.82	+0.08	USD/RUB	89.5080	+0.27	-3.06
옥수수	485.25	-1.62	+1.30	USD/BRL	4.9098	+0.85	-0.60
밀	575.75	-0.90	-3.92	USD/CNH	7.2173	-0.43	-1.22
대두	1,340.25	-1.47	-0.54	USD/KRW	1,296.90	0.00	-1.51
커피	166.65	-2.66	-2.29	USD/KRW NDF1M	1,293.43	+0.21	-1.72
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4.435	-0.01	-21.64	스페인	3.597	+0.60	-17.60
한국	3.805	+1.50	-15.50	포르투갈	3.253	+1.50	-20.00
일본	0.756	-3.50	-9.40	그리스	3.858	+2.10	-12.30
독일	2.588	-0.20	-12.90	이탈리아	4.358	+0.40	-21.80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